지역 소식통

정읍시, 고용불안 운수 종사자 회복지원금 지급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와 택시 기사에게 전액 도비로 민생 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 130여 명과 택시(법인, 개인) 기사 590여 명으로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억7천여 만원이다.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 한정된다.

지원금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세버스 조합과 개인택시·일반택시법인 등을 통해 정읍시청 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아동의 사회진출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정읍시가 사회 진출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비율과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자립 준비 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1:1 → 1: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보호 대상 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 등)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가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립금은 만 18세가 된 이후 대학 학자금과 기술자격, 등 특정 자립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유진섭 시장, 시의회 임시회서 시정 운영 방향 설명

유진섭 시장은 18일 2022년 첫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시민과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정읍의 미래를 바꿀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2022년에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라는 찬란한 빛을 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시민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나긴 감염병과의 싸움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위기의 시간을 함께 극복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시는 전북 최초로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민·관 협업으로 성공적인 집단면역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6.1%의 시민에게도 전북최초로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용산호 수변길 개통과 내장산 문화광장 친수공간, 복합놀이시설 천사히어로즈, 임산물체험단지 등을 조성했다.

특히, 내장산 문화광장에는 진입광장을 정비하고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했으며, 구절초를 형상화한 원형 분수대와 아치형 석교를 만들어 1년 내내 방문객에게 시원한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신 여행 트렌드에 맞는 순환열차와 레일바이크, 범퍼보트를 조성 중이며, 국민연금공단 연수원과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내장산 자연휴양림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동물 의약품 전문회사인 ㈜케어사이드를 선두로 8개의 유망기업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둥지를 틀었고, ㈜디에스앤피가 250억원 규모의 철강제품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크게 5개 목표를 토대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조성 ▲살맛 나는 첨단경제 도시 조성 ▲함께하는 교육복지 도시 조성 ▲스마트한 농·생명 도시 조성 ▲품격있는 안전 행복 도시 조성이다.

유 시장은 "내장산과 용산호, 문화광장을 아우르는 트라이앵글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밝혔다.

또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낭만모래사장과 생명나무전망대, 물빛무대 등 친환경 생태 웰빙 공간을 조성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읍의 자랑인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을 널리 알려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내장산문화광장에 2.2km의 순환 열차와 레일바이크를 조성하고, 시립박물관 옆 부지에 디지털 미디어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제3 일반산업단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문화와 복지, 편의 기능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샘고을시장과 주변 상가를 현대적 감각으로 꾸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도모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예비비 107억원을 투입해 설 명절 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읍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지원금도 1인당 100만원 씩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도약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충분히 갖춰지고 단단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민선 7기는 그 디딤돌을 준비하는 데 충분했으며 이제 도약의 기적을 이룰 때"하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8월 4일 2년 한시 운영 종료

부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홍보

부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한 조사와 2개월 공고기간 중 상속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063-580-4235)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초등·대학 신입생 지원금 접수 시작

전북 고창군이 '대학진학축하금'과 '초등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부담 낮추기에 나섰다.

18일 고창군은 '자식농사 잘짓는 사람키우기'의 일환으로 대학진학축하금(1인 최대 100만원) 과 책가방 구입비(1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책가방 구입비는 2월11일까지, 대학진학축하금은 2월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책가방 구입비 지원대상은 현재(1월 1일)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창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해당된다.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군은 관내 초등학교로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3월에 신청계좌로 개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진학축하금 대상자는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고창군으로 돼 있는 올해 대학 입학생이다. 고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내에 대학(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 또는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축하금은 고창군 전입기간에 비례해 100만원, 70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민선7기 공약사업… 완료율 89.8%

부안군은 17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선7기 군수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상황을 확정했다.

공약이행실적 평가는 분임별로 나뉘어 각 세부사업의 당초계획 이행여부, 사업 진척도, 사업비 확보 현황, 집행 비율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와 각 공약담당자의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평가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2020년 11월 공개모집 공고 등을 거쳐 선발 됐으며 참여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4개 분임으로 나뉘어 각 분임별 분임장과 일반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선7기 69개 세부 공약사업 중 이행완료 62건(89.8%), 정상추진 6건(8.7%), 일부추진은 1건으로 평가 되었다.

각 분임별 평가의견 발표시간에 참여행정 양용두 분임장은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 공약에 대해 출향민들이 고향에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전하며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해주기를 당부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가장 열띤 질의·응답을 하며 공약사항에 대해 관심을 보였는데, 이숙희 분임장은 평가발표 시간에 '부안에 관광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뿌듯하다' 면서, 특히 '복합 휴양 타운 유치 공약의 추진사항으로 대규모 휴양콘도 유치, 전북 교육수련원 유치,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많은 대규모 관광시설들로 인한 부안발전이 기대된다' 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희 평가단장은 '전반적인 공약이 잘 추진되고 있다' 면서 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완료되지 않은 공약도 임기내 속도를 낼 것' 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부안군(군수:권익현)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재활보건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보건센터운영은 물리치료사 3명 작업치료사 1명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운동,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재활보건센터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가정방문 재활서비스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장애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구축하여 소통과 피드백을 통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활 운동실은 지체,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균형능력측정기, 상.하지 근력운동기, 유산소 운동기 등 15종의 재활전문 장비를 이용해 개인별 맞춤운동과 신체 재활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사회 참여기회를 마련해주고 삶의 질 향상과 자립능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